

# “대중 위해 만든 노래 음원 줄세우고 싶어”

###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 정규 13집 ‘아이엠’ 발표



“20년 넘게 활동하면서 정규 앨범 13장, 다른 앨범을 포함하면 20장 정도 되는데 그 앨범들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전 행운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수 임창정은 정규 13집 ‘아이엠(I’M)’을 내는 소회가 그 어느때보다 각별한 듯 했다.

임창정은 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신한카드 판스퀘어 라이브홀에서 정규 13집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타이틀곡 ‘내가 저지른 사랑’과 ‘화해’, ‘이제 날 놓아줘’, ‘너에게 달려간다’ 등 수록곡을 선보였다.

새 앨범 타이틀곡인 ‘내가 저지른 사랑’은 임창정과 작곡가 멧돼지가 함께 작곡한 곡이다. 임창정과 멧돼지는 지난해 각종 음원차트와 가요 프로그램 정상을 휩쓴 ‘또 다시 사랑’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으며, 이번 신곡도 발라드 황제로서의 임창정의 면모를 재차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임창정은 자신의 세 아들의 응원에 힘입어 새 앨범 타이틀곡을 ‘내가 저지른 사랑’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에게 ‘내가 저지른 사랑’을 들려주고 좋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다고 하니 ‘또 다시 사랑’보다 좋다고 했어요. (웃음) 애들 귀는 정확하잖아요.”

임창정은 “애들 귀에 멜로디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며 “타이틀곡으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타이틀곡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내가 저지른 사랑’이란 곡명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좀 책임을 지지는 못”이라고 설명했다.

“남자들이 좋다고 여자를 따라다니고 내 여자를 만들었으면, 사랑 후 이별이 올 때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의 곡”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내가 저지른 사랑’은 하이라이트 부분의 고음이 애절하게 다가오는 곡이다. 임창정이 작정을 하고 실정한 고음이기도 하다.

“이번 앨범에 대해 회사에서 방송 활동은 안

하는 쪽으로 홍보하겠다고 해서 라이브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웃음) 라이브 계획이 없어서 마음껏 높게 만들어도 되겠구나 싶어서 정말 녹음부스에서 원 없이 소리를 내질렀죠. 그런데 오늘, 내일, 모래 라이브 무대가 계속 있네요. (웃음)”

그는 작곡가 김형석에게서 이번 앨범 수록곡 ‘그마저 내려놓는’을 받게 된 뒷이야기도 털어놓았다. 김형석은 임창정의 대표곡인 ‘그때 또다시’, ‘러브어페어’, ‘기다리는 이유’ 등의 작곡을 맡았으며 임창정과 다시 호흡을 맞춘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정말 몇 달을 쫓아다니 끝에 노래를 받았어요. ‘형 노래 안 들어가면 앨범 못 낸다’고 매달렸죠. (웃음) 노래 받고 나니 앨범 퀄리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임창정은 새 앨범의 흥행에 대한 욕심도 드러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줄 세우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이어 “대중들을 위해 만든 노래니까 많은 분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며 “저라고 안 됩니까? 아이돌만 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임창정은 또 “시즌 송 욕심이 있다. 가을이 되면 신승훈 선배와 같은 (발라드 감자의) 반열에 끼고 싶다”고 발라드 가수로서 포부도 밝히며 “(시즌 송 욕심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의 희망 사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묻자 자신만의 ‘연예인론’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정 연령층만을 공략하기보다 간혹 TV에서 재롱도 부리고 가끔 진지한 모습으로 연기도 하는 등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창정은 “‘만능 엔터테이너’란 수식어보다는 그냥 ‘연예인’ 임창정이 편하다”면서 “대중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중이 원하는 어떤 형태론든 재롱을 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어디든 불러주시면 재롱부리는 ‘판따라’이고, ‘판따라’로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임창정은 연기자로 첫선을 보인 이래 가요, 영화, 예능계를 오가며 맹활약해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를 연예계에 정착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 ‘가화만사성’ 커플 이상우·김소연 실제 커플 되다

동갑내기 배우 이상우(36)와 김소연(36)이 사랑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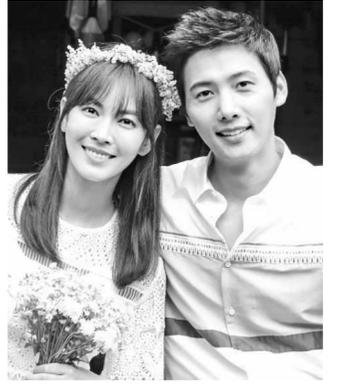
6일 방송가에 따르면 MBC TV 주말극 ‘가화만사성’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이상우와 김소연이 극에서의 인연을 현실로 이어와 실제로 연인이 됐다.

지난달 21일 막을 내린 ‘가화만사성’에서 이상우와 김소연은 각각 서지건과 봉해령 역을 맡아 6개월간 장애물이 많은 사랑 연기를 펼쳤다. 서지건과 봉해령은 각각 이혼의 아픔을 뒤로 하고 어렵게 재혼에 골인하지만 다시 위기를 맞는 등 험난한 사랑을 그려냈다.

김소연은 드라마 마지막 촬영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우 오빠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며 “같이 있으면 같이 진실해지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주위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상우 씨랑 뭐가 없느냐, 안 만나느냐고 물어본다”고 말해 교제를 시사하기도 했었다.

‘가화만사성’의 한 관계자는 “촬영 중반부터 이상우와 김소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종종 즈음에 실제로 둘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두 배우는 모두 1980년생으로, 지금껏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던 공존점이 있다. 이들



는 30대 후반인 만큼 지금의 만남을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측의 소속사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우는 지난 2005년 단막극으로 데뷔한 후 ‘조강지처클럽’과 ‘인생은 아름다워’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사랑을 믿어요’, ‘천일의 약속’, ‘신들의 만찬’,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해요 엄마’ 등에 부지런히 출연하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4년 SBS 청소년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데뷔한 김소연은 ‘이브의 모든 것’으로 일찌감치 정상의 인기를 누렸다. 이후 ‘엄마야 누나야’, ‘식객’, ‘아이리스’, ‘검사 프린세스’, ‘닥터 챔프’, ‘로맨스가 필요해’ 등을 통해 다채롭게 연기 변신을 하며 꾸준한 사랑받고 있다.

# 70년대 서울, 로맨스와 추억 속으로

### KBS 2TV ‘저 하늘에 태양이’ 오늘 첫 방영

KBS 2TV가 새 아침 일일극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를 선보인다.

‘저 하늘에 태양이’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순수한 산골처녀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한국 최고의 여배우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무일푼으로 무작정 상경해 버스안내양으로 취직하는 산골처녀 강인경 역은 배우 윤아정이 맡았다.

배우 이민우와 노영학이 영화밖에 모르는 백두영화사 대표 남정호와 전제적인 극작가 이자 연출가인 차민우 역을 맡아 강인경을 놓

고 다루는 러브라인을 형성한다.

여기에 남정호의 동생으로 대학 선배인 차민우를 짝사랑하는 남희애(김혜지 분)가 끼어든다. 외화수입과 검열로 얼룩진 1970년대 영화사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들 네 명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가 드라마의 주축이다.

70년대 서울의 모습을 재현한 영상과 당시 유행했던 패션, 소품 등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극하며 중장년층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 ‘내 마음의 꽃비’ 후속작인 ‘저 하늘에 태양이’는 7일 오전 9시 첫 방송 된다.

###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00 이육성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 30 KBC 모닝와이드   |
| 8  | 25 아침미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
| 9  | 30 KBS 뉴스                               |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 10 좋은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40 지구촌 뉴스                          |                                      |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
| 11 | 00 TV쇼 진품명품                             |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뜻하게)(재)       | 30 수목미니시리즈 (W)(재)                    | 00 닥터 365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
| 12 | 00 KBS 뉴스 12                            |                                    | 00 MBC 정오뉴스 2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 00 SBS 12뉴스 1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
| 1  |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 00 생생정보 스페셜                        | 05 수목미니시리즈 (W)(재)                    | 55 TV 블로그 폼지락  |
| 2  | 00 특집 세계 태권도의 날 기념 콘서트                  |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 05 내꺼야 폭풍 30 드림 뉴어 스페셜               |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
| 3  | 00 한국인의 밤상 50 감성애니 하루 55 튜닝생활체조         |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 00 3시 뉴스브리핑  |
| 4  | 00 4시 뉴스집중                              | 00 여유만만(재)                         |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 30 고향이 보인다   |
| 5  |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꼬마야사 콩도령(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 00 MBC 이브닝 뉴스                        | 00 예술론 또봇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
| 6  |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 10 생방송 '빛날'                          |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원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
| 7  | 00 KBS 뉴스7 35 필통                        |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 15 TV 블로그 폼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
| 8  |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 30 글로벌24 55 신일 리얼 도전기 루키           |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
| 9  | 00 KBS 뉴스9                              |                                    | 30 리얼스토리 논                           |  |
| 10 | 00 시사토론'10' 55 송터VR                     |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뜻하게)          | 00 수목미니시리즈 (W)                       | 00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                                    |
| 11 |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 10 추적 60분                          | 10 라디오스타                             |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
| 12 | 50 2016 서울 드라마 어워즈 결직선 (사베나 여객기 납치사건)   |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다이어리            | 30 나이트 라인  |

| EBS1                               |   |                           |
|------------------------------------|---|---------------------------|
| 05:00 EBSe 생활 영어                   | 10:30 한국기행                              | 14:25 책과 빵                |
|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해객류림기 황산) |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차돌박이 두부조림, 오징어 실제 간장볶음) | 14:55 모피와 친구들 (할머니 골목 장터) |
| 06:00 한국기행(재)                      | 11:20 세계테마기행(재)                         | 15:05 두끼 탐험대              |
| 06:20 세계테마기행(재)                    | 12:00 EBS 정오 뉴스                         | 15:20 꼬마기사 마이크            |
|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 15:35 요술 상자(2)            |
| 07:30 뽀롱뽀롱 뽀로로                     | 12:40 지식채널 e                            | 15:45 레이디버그(재)            |
| 07:45 꼬마버스 타요                      | 12:45 EBS 초대석 - 배영 고기 디자이너              | 16:15 두다더구                |
| 08:00 덩동덩 유치원 1~3                  | 13:40 오 마이 미래 2035 (신극한직업)              | 16:30 Why - 최고! 호기심딱지(재)  |
| 08:45 Why - 최고! 호기심딱지              |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 16:45 덩동덩 유치원 1~3(재)      |
| 09:00 주사위 오징어 큐비슈                  | 09:40 아버지의 귀                            |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
| 09:15 시계마을 타기북!                    |   | 17:45 꼬마버스 타요(재)          |
|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   |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
| 09:40 아버지의 귀                       |   | 19:00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
|                                    |   | 19:30 EBS 뉴스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 9월 7일 (8월 7일 壬辰)  |
|----------------|--|---|
| 子              | 48년생 금금한 점이 있다면 문예에 뛰어 있다. 60년생 의외의 인연이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72년생 본인이 의도하였던 방향과 정반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84년생 공감하였다고 해서 공동 행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행운의 숫자 : 17,20 | 42년생 처음에는 생소하더라도 자주 행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 니라. 54년생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일이 있느니라. 66년생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실행해도 된다. 78년생 잠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7,33        |
| 丑              | 49년생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낫다. 61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호기가 있느니라. 73년생 알고 있었다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85년생 인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5,74          | 43년생 재물이 크게 열렸으니 잘 활용해 보자. 55년생 사전에 미리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67년생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9년생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39,28      |
| 寅              | 50년생 파악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대임을 감안하라. 62년생 자신의 눈썹은 보지 못하는 이치를 알라. 74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했을 때 효과를 본다. 86년생 일단 수용하고 보는 것이 이익이 니라. 행운의 숫자 : 71,58    | 44년생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노력이 절실한 판국이다. 56년생 전체를 두루 살펴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68년생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 가장 무난하리라. 80년생 상호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7,39       |
| 卯              | 51년생 일도양단하여 대범하게 처리하라. 63년생 전체적 국면을 조망하는 안목이 절실하다. 75년생 일반적인 보편성과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87년생 일시적으로 중단수가 보이지만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4,41                 | 45년생 전체적인 판도를 좌지우지할만한 커다란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57년생 전화위복이요, 새움지마에 비유할 만하다. 69년생 이면의 결함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81년생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한다. 행운의 숫자 : 93,67 |
| 辰              | 40년생 계속 행해야 실효적이다. 52년생 임한다면 오히려 손실만 내겠다. 64년생 당해 보면 알 수 있다. 76년생 입체적인 관점과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88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행운의 숫자 : 59,61        | 46년생 절실한 시기에 귀인의 도움이 따르리라. 58년생 차차 증폭되는 양태라는 것을 알고 차분하면서도 완벽하게 대응해야 하리라. 70년생 점차로 발전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82년생 정도를 걸으면 봄날이로다. 행운의 숫자 : 18,09      |
| 巳              | 41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으리라. 53년생 자생력을 키워야 할 단계이다. 65년생 자신을 상대에게 맞추는 편이 백번 나을 것이다. 77년생 더 나은 조건이다. 89년생 자의적인 발상은 오만을 야기 하여 일을 그르치게 한다. 행운의 숫자 : 27,46     | 47년생 통상적으로만 임한다면 쉽게 효과를 보겠다. 59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 71년생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83년생 제대로 인식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24     |